

# 蘇州 원림의 景名 연구\*

— 用典한 景명을 중심으로 —

심우영\*\*

---

◁ 목 차 ▷

- I. 서론
  - II. 기존의 景명 命名法
  - III. 귀납적 결과에 따른 景명 분류
    - 1. 신화전설·역사고사
    - 2. 文辭, 詩句
  - IV. 결론
- 

## I. 서론

‘景名’이란 ‘景觀題名(경관에 붙인 이름)’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이름을 일컫는다. ‘景명’은 또 ‘景點名稱(경치 지점의 명칭)’을 줄인 말로도 쓰이는데, 이는 대상을 ‘경관’에서 ‘경점’으로 축소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중국 고대원림은 住居, 遊覽, 觀賞, 讀書, 集會, 飲酒, 饗宴, 娛樂(琴·棋·書·畫)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 중에서도 觀賞이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여 원림 내의 각 경관에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데, 造園者나 園主는 반드시 여러 차례 퇴고를 거친 뒤에 심사숙고하여 확정하였다. 원림의 景명은 그들의 예술관과 감정 및 사상 의지를 담고 뚜렷한 주제와 심원한 함의를 지니며 풍성한 운치와 드높은 의정을 느끼도록 하여, 중국 원림이 인문예술로 승화하는 데 화룡점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景명을 통해 경치와 건축물의 의미를 살

---

\* 이 논문은 2009년도 상명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상명대학교 어문대학 중국어문학과 교수

피고 재미를 더하면서 인문적 소양을 넓히고, 그 속에 함유된 스토리를 통해 物我兩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소주의 私家園林은 동진시기에 처음 등장하였고, 남조시기의 형성기를 거쳐 당·송·원시기에 이르러 완전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명·청시기에는 다양한 조경수법이 가미되어 淸秀淡雅한 의경을 갖춘 소형의 사가원림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 강남원림을 대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소주 사가원림의 조원특징 중 하나는 원림 내의 경명이 심오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경명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경명을 어떤 방법으로 붙였는지에 관한 기존의 주장을 살핀 후, 소주사대명원인 拙政園, 留園, 網師園, 滄浪亭을 위시하여 獅子林, 藕園, 藝圃, 怡園, 曲園, 退思園, 虎丘, 暢園, 羨園, 天平山莊, 環秀山莊, 擁翠山莊 등 16개 원림 457개 경명 중 用典한 경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분류하고 그 특색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기존의 경명 命名法

경명의 명명법에 대하여 이미 발표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荷仙의 4인은 중국 고전원림의 경명을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개념이나 속성, 관계 등을 드러낼 때는 意象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인식 중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물 자체를 표현할 때는 具象으로 나누었다. 우선 意象으로는 典故傳說(魚樂亭, 濠濮亭, 立雪堂, 拜石軒), 哲理之趣(小滄浪), 吉神善慶(萬福樓) 등이 있고, 구상은 日月光影(月到風來亭, 塔影亭), 植物山石(梅花書院, 蘭室, 水竹居, 菊香書屋, 暗香疎影樓, 松風閣, 雙桐書屋, 曲水荷香, 遠香堂, 香遠益清, 聞木樨香軒, 湛壁亭, 倚山園, 片石山房), 四季氣候(殿春籟, 喜雨快雪之亭), 人名(青藤書屋)·方位(東園, 湖心亭)·形狀(扇子亭, 螺髻亭) 등이 있다.<sup>1)</sup>

둘째, 方茜과 李玉堂은 중국고전사가원림의 경물에 대한 명명법을 규정하였는데, 1. 指稱符號命名法(人名, 地名, 物名) 2. 語言文字命名法(字形離析法, 語詞

1) 金荷仙·華海鏡·周慕眞·王自力·朱雲有 〈園名景名的取名方法及其文化內涵〉: 《浙江林學院學報》1999년 3호(제16기), 303-307쪽 참조

諧音法, 詞義雙關法, 成語節取法, 語句省簡法, 典故引用法) 3. 記事狀物命名法(記事, 狀物) 4. 言情述志命名法(言情, 述志) 등 네 가지 분류 명명법을 제기하였다.<sup>2)</sup> 이후, 방전은 독자적으로 중국고전사가원림의 경명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는 2004년 10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蘇州四大名園의 경명법 분류에 관한 기존 주장 중 제2항 '語言文字命名法'을 '語言修辭命名法'으로 바꾸고 소분류도 比喻, 象徵, 用典으로 수정하였다.<sup>3)</sup> 그는 다시 2005년 2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蘇州私家名園에 대한 경명법 기존의 제2항 '語言修辭命名法'의 소분류를 6가지(別稱, 形似, 比喻, 借代, 象徵, 用典)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sup>4)</sup> 그의 주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분류(항)		중·소분류(목)	
1	指稱符號命名法	人名作指稱符號(字, 號도 포함): 映閣, 南村草堂	
		地名作指稱符號(方位詞도 포함): 東萊草堂, 暘谷書堂	
		物名作指稱符號	自然名稱: 月廊, 飛霞亭, 紫霞洞, 落碧亭
			植物名稱: 芙蓉坡, 楊柳灣, 藤橋
			動物名稱: 鶴嶼, 紅鵝館, 乳魚亭
物品名稱: 坡山琴館, 五研樓, 畫舫齋			
事物名稱: 漢學居			
2	言語修辭命名法	別稱命名法: 乳魚亭(乳魚는 小魚의 별칭), 樨廊(桂花는 木樨의 별칭)	
		形似命名法: 石聽琴室, 屏風三疊, 蘆谷	
		比喻命名法: 葉居(葉은 小舟), 群玉堂(玉은 열매), 宛紅杠	
		借代命名法: 寒香齋(寒香은 梅花香氣), 凝雪樓(凝雪은 白梅)	
		象徵命名法: 愛蓮窩, 藕香榭, 水香簾, 紅蕙山房	
	用典命名法	整用: 詩文 중의 한 단어 혹은 반 구절이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	
拆用: 두 구절에서 각각 한 단어를 취하거나 한 구절에서 한 자씩 나누어 취하는 것			
引用: 책 속의 고사나 단어를 취하는 것			
3	記事狀物命名法	記事(경치지점의 내력과 작용을 기록): 聽槽樓, 洗研池	
狀物(경치지점의 상황을 묘사): 錦繡谷, 朝爽臺,			
4	言情述志命名法	명명자의 감정과 의지를 표현함: 杞菊齋(은일), 延光閣(장수), 釣雪潭(청렴)	

2) 李玉堂·方茜 〈中國古典私家園林中的名稱文化初探〉; 《新建築》 2005년 제5기, 1-2쪽 참조.(투고일자는 2004년 3월)

3) 方茜, 〈蘇州四大名園中的景名文化〉; 《建築創作》 2004년 10월, 119쪽 참조.(투고일자는 2004년 8월)

4) 方茜 〈蘇州私家名園中的景名文化〉; 《華中建築》 2005년 2월 제23권, 123-124쪽 참조.(투고일자는 8월 26일)

셋째, 席岳婷 외 2인은 여행 풍경지구의 경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명법을 1. 專有名詞命名法(人名: 槐雨亭, 地名: 曲溪樓, 方位名詞, 物名: 海棠塢, 大唐芙蓉園, 鶴亭.) 2. 言語修辭命名法(比喻: 飛虹橋, 臥虹橋., 瑤琳仙境, 洗月亭, 象徵: 藕花水榭, 聽松風處, 用典: 怡顏處, 月到風來亭, 聽雨樓) 3. 記事狀物命名法: 聽書臺, 嘯月臺, 若墅堂 4. 言情述志命名法: 放眼亭 등으로 나누었다.<sup>5)</sup>

넷째, 戴同標는 경명의 구상 양식에 대해 1. 形意結合式(예: 小飛虹) 2. 借詩點意式(예: 遠香堂) 3. 依景, 據勢擴大誇張式(예: 浮翠閣) 4. 擷取借代式(두 곳의 경치가 서로 비슷하여 한 곳을 빌어 다른 곳을 표현하는 방식)(예: 十里香雪梅) 5. 功能表達式(기능을 나타내는 방식) 등 5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sup>6)</sup>

다섯째, 簡浩東와 朱永春은 원림의 경물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品味與解構〉라는 제목 하에, 1. 완곡히 새롭게 표현하는 것(委婉新詠)을 강구함 2. 述古(聽雨軒, 魚樂國)와 用典(指柏軒, 立雪堂, 眞趣亭)을 선호함 3. 현장을 중시함 4. 직접 형상을 묘사함(美人石, 鏡池) 5. 지리위치, 귀속, 기능에 준거함(湖心亭, 兩宜亭, 看松讀畫軒, 琴室, 聞木樨香軒, 聽雨軒) 6. 경관의 내용에 따라 명명함(牧丹亭, 芍藥圃, 桃花島, 十八曼陀羅花館, 小山叢桂軒) 7. 직접 감정과 의지를 표현함(志清意遠)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sup>7)</sup>

이상에서 볼 때, 경명법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제일 먼저 나온, 金荷仙 외 4인이 주장한 구분법은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잘못된 점은 없으나, '구상'의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의상'이라는 어휘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어 나온 方茜은 李玉堂과 더불어 중국고전사가원림의 경물에 대한 명명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여, 연이어 독자적으로 두 차례나 경명법을 제시하면서 4개의 대분류와 12개의 중분류, 2개의 중분류(物名과 用典)는 다시 8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경명 자체가 기표와 기의를 동시에 구현한 것이

5) 席岳婷, 魏峰群, 馬耀峰 〈旅遊風景名規劃設計〉; 《建築科學與工程學報》2006년 9월 제23권 제3기, 83쪽 참조.

6) 〈戴同標談中國園林景觀題名的構思格式〉2007년 1기, 1-3쪽 참조.

7) 簡浩東, 朱永春 〈品味與解構—中國古典園林景名創作方法探討〉; 《中外建築》2010년 12기, 81-83쪽 참조.

라고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나올 수 있으므로 지나친 선긋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席岳婷 외 2인은 제1항 ‘指稱符號命名法’을 ‘專有名詞命名法’으로 바꾸었을 뿐 체재와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方茜의 명명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戴同標는 네 가지 분류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단순화하여 더욱더 모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簡浩東과 朱永春은 경명법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方茜처럼 명확하게 구분 짓지는 않았으나 명명의 취지, 경향, 방법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를 섭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중국 원림의 題名은 중당 이후에 문인들이 등장하면서 문학적 韻味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경명은 더욱더 다양해지지만, 이상에서 본 것처럼 題名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로 이전의 관례에 따라 세 자를 원칙으로 하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여 독특한 품격과 운치를 담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언급한 명명법 역시 경명의 분석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얻어진 결과로 언제나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경명과 경관 자체 사이에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 마치 언어학에 있어 記表와 記意의 관계와 같이, 경명은 경관을 지칭함으로써 기호의 외연을 충당하고 음성과 문자의 기능을 실현한다. 또한 경관 자체는 부호의 내포를 담당하여 풍부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며 개념의 기능을 실현한다. 그리하여 경명은 경관 자체의 내용과 주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거나 간접적으로 投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 경명은 경관 자체와는 상관없이 원주의 감정과 포부, 품격과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과 추구 등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왕국유의 ‘有我之境’ 설을 가져와 설명하는데, 창작자의 주관적 사상과 감정만 그대로 노출될 뿐 ‘物我交融’이라는 최고의 심미적 가치는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의를 기표하는 경명의 구상은 대부분 歷史·神話 고사와 文辭 혹은 詩句 두 가지 방향에서 시작된 것이 많다. 이는 소위 ‘編新不如述古’라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述古’의 방법으로는 用典이 가장 적합하고 용이한 방법이다. 현재 소주의 16개 원림 400여 개의 경명을 조사한 바로는, 127개에서 용전한 것을 확인해

최소한 30% 정도는 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新編'을 얘기할 수 있는데, 경명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경관 자체를 지향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향할 경우 명확한 기표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상해야 할 경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일종의 '경관 설명서'로 작용한다. 부분적으로 지향할 경우 단지 실마리만 제공하는 일종의 암시로 '言外之意'이자 '弦外之音'이며, 경명과 경관의 관계는 간접적이고 지극히 은밀하다.

이렇게 하여 생긴 경명은 어떤 것은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어떤 것은 상징과 비유로 포장되어 원주의 감정과 지조를 드러내며 정신적 내용을 결집시키고, 또한 경물의 형상과 정황을 정묘하게 묘사하여 意境을 승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림의 경명은 용전한 것이 많은데, 이는 원주나 조원가 혹은 작명가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역량을 과시하고 경관의 의경을 승화시키며 예술적이며 함축적인 경명으로 재현하는 데 가장 용이하고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용전으로 이루어진 경명만을 대상으로 출처를 밝히고, 내용과 표현방식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며, 그 속에 함유된 의경을 살피고자 한다.

'用典'은 간단히 말하면 '用事'라고도 한다. 이는 옛날의 제도나 문물, 시문 중에 등장하는 옛날 신화나 역사고사, 까닭이 담긴 詩語 혹은 文句, 그리고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나 사람 등을 이용하여 낱말과 구절을 함축하고 내용을 전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용전은 대상으로 보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事典'과 '語典'이다.

## 1. 신화전설·역사고사

본고의 연구대상 가운데 신화고사와 관련된 경명에는 藝圃의 陽谷書堂이 있다. '양곡'은 해가 뜨는 곳, 즉 신화로는 태양신이 머무는 곳을 말한다.<sup>8)</sup> 여기는 원래 원주인 姜埰의 아들 安節이 공부하던 장소로 태양이 떠오르는 장소에 위치하며 햇빛이 충만한 곳이다. '양곡'이란 위치한 장소만을 따져 지은 이름 같지만 사실은 신화고사에서 나왔고 그 이면에는 태양처럼 솟는 자식이 되라는 부친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8) 《尙書·堯典》: 「分命羲仲, 宅嵎夷, 日暘谷。」

또한 전설고사와 관련된 경명으로는 網師園의 樵風徑이 있다. 이곳은 높낮이가 심하고 굴곡이 많은 산길이다. 《後漢書·鄭弘傳》의 「鄭弘字巨君, 會稽山陰人」에 李賢이 南朝 宋 孔靈符의 《會稽記》를 인용하여 주를 달았는데,<sup>9)</sup> 여기에서 '若邪溪'의 바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鄭公風' 또는 '樵風'이라고 부른다. 그 길은 곧 '樵風徑'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경명으로 취하였다. '樵風徑'은 은사들이 땀감을 하기 위해 지나다니는 길을 통칭하는 말이다.

역사고사와 관련된 경명은 虎丘에 집중되어 있는데, 吳王인 闔閭가 蘇州에 도성을 세우고 죽은 뒤 이곳에 묻혔다는 이유로 중요한 역사 유적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먼저 합려의 칼과 관련하여 試劍石<sup>10)</sup>, 劍池<sup>11)</sup>가 있고, 그의 무덤과 관련하여 서는 分翠亭<sup>12)</sup>이 있다.

불교고사와 관련된 경명으로는 竺道生(生公)이 설법을 하면 천 명이 열을 지어 들었다고 하는 千人石<sup>13)</sup>과 불경을 읽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인 枕石이 있다. 또한 양무제를 사사한 高僧 惠響이 가끔 호구에 머물다 甘泉이 없는 걸 곤혹스럽게 여겨 직접 땅에 엮드려 소리를 듣고 우물을 팠더니 샘물이 솟았다고 하여 이름 붙인 涌泉亭이 있고, 宋文帝가 佛法의 계율을 재치 있게 적용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하였다는 可中亭<sup>14)</sup>이 있다. 마지막으로 三笑亭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慧遠法師, 陶淵明, 陸修靜道士가 虎溪를 지나다 호랑이

9) 李賢注引南朝宋孔靈符《會稽記》: 「射的山南有白鶴山, 此鶴爲仙人取箭. 漢太尉鄭弘嘗采薪, 得一遺箭, 頃有人覓, 弘還之, 問何所欲, 弘識其神人也. 曰: 『常患若邪溪載薪爲難, 愿旦南風, 暮北風.』」后果然。」

10) 돌의 틈새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 오왕 합려가 干將으로부터 받은 '莫邪'라는 칼을 시험하다 생겼다는 설, 둘째. 진시황이 합려의 무덤에서 찾은 칼을 시험하다 생겼다는 설, 셋째. 합려의 무덤을 파다 웅크리고 있는 백호를 치다 잘못하여 바위를 쳐서 생겼다는 설이 있다.

11)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 합려의 장지, 둘째 진시황이 판 구덩이, 셋째 옛사람들이 칼을 담금질하던 곳.

12) 합려의 무덤을 파다 생긴 흙을 쌓아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니 무성하여 사방이 온통 푸른색이었다.

13) 일설에 바위가 붉은 것은 夫差가 합려의 묘지를 만든 약 천 명의 사람을 그곳에서 죽여 그 피가 스며들었기 때문이라 한다.

14) '可中'이란 해가 중앙에 온다는 말로 정오를 가리킨다. 송문제가 승려들과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오가 지나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불법의 계율에 따라 식사를 못하자 時辰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하여 모두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웃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역사인물과 관련하여서는 호구의 古眞娘亭을 들 수 있는데, 안사의 난을 피해 북방에서 내려와 나중에 최고의 기녀가 된 眞娘<sup>15)</sup>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정자에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禪宗의 寺廟원림인 獅子林에는 선종고사와 관련된 경명인 立雪堂<sup>16)</sup>이 있고, 禪宗의 公案故事와 관련된 경명으로 問梅閣<sup>17)</sup>과 指栢軒<sup>18)</sup>이 있다. 창랑정의 看山樓<sup>19)</sup>도 선종공안과 관련이 있다. 이 외에도 怡園의 拜石軒과 齋正원의 拜石坡 모두 북송의 米芾이 怪石을 보고 절을 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장자》의 고사에서 나온 경명을 살펴보면 먼저 擁翠山莊의 抱瓮軒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天地篇〉에 등장하는 子貢과 漢陰丈人の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편하게 여기며 낙후된 것이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抱瓮灌畦’<sup>20)</sup>와 같은 경지에 이르고 싶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또한 〈秋水篇〉에 등장하는 莊子와 惠子の 濠梁問答과 莊子の 濮水垂釣 고사에서 나온 留園의 濠濮亭, 天平山莊의 魚樂園, 창랑정의 觀魚處(濠上觀, 釣魚臺) 등을 들 수 있다.

15) 王蔭祥이 그녀를 탐하자 자살하였는데 후에 왕음상이 후회하고 그녀를 호구산에 厚葬한 뒤 묘지 위에 정자를 지었다.

16) 불경을 강의하고 설법을 전달하는 장소이다. 慧可和尚이 소림사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 達摩祖師를 알현하기 위해 밤새도록 문밖에서 기다리다 무릎까지 눈이 찼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17) 閣 앞에 ‘臥龍’이라고 하는 매화나무가 있다. 馬祖道一禪師의 제자인 法常은 스승으로부터 ‘卽心卽佛’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나중에 大梅法常禪師가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이 법상을 테스트하기 위해 ‘非心非佛’이라는 말로 호도하려 하였으나 끄덕도 하지 않자 ‘梅子熟了’라는 말로 그를 칭찬하였다. 즉, ‘梅’는 ‘大梅法常禪師’를 일컫는다.

18) 한 승려가 趙州從稔禪師에게 祖師(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나고 묻자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였다.

19) 송대 吉州(강서성)의 靑山惟政禪師는 도를 깨우치는 데 세 가지 경계를 순차적으로 설교하였는데, 첫 번째가 ‘看山是山’이고 두 번째가 ‘看山不是山’이며 세 번째가 ‘看山還是山’이라 하였다.

20) 독을 안고 우물 안을 오르내리며 우직하게 물을 퍼서 논에다 대는 노인.



## 2. 文辭, 詩句

문사나 시구를 용전한 경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哲理의 내용, 둘째 서경적 묘사, 셋째 서정적 표현 등이다. 첫째는 내용과 관련이 있고, 둘째와 셋째는 표현과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경명 자체가 외형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따졌기 때문이다. 철리적 내용은 다시 유가적, 도가적, 불가적 내용으로 나누고, 서경적 묘사는 寫實的, 寫意的 경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철리적 내용

철리적인 내용이란 주로 儒·道·釋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는 주로 유가의 인생철학과 생활태도 그리고 가문에 대한 유교적 염원, 도가의 虛靜空明한 경계와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불교적 용어 등으로 용전한 경명을 다룬다.

#### ① 유가적 내용

우선 유가의 인생철학과 관련된 경명을 예로 들면 曲園의 樂知堂을 들 수 있다. ‘樂知’는 ‘樂天知命’을 줄인 말로 ‘천명을 알고 즐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구절은 《周易》〈繫辭傳〉에 나오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창랑정의 仰止亭<sup>21)</sup>, 網師園의 稻和館<sup>22)</sup>, 環秀山莊의 有穀堂<sup>23)</sup>, 留園의 後樂堂<sup>24)</sup> 등이 있다.

유가가 지향하는 고매한 인격과 관련된 경명을 예로 들면 退思園<sup>25)</sup>의 歲寒居를 들 수 있다. 이는 《論語》〈子罕〉: 「날씨가 추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에서 나온 것으로, ‘松柏’은

21) 《시경》〈車轄〉: 「高山仰止, 景行生止」 ‘高山’은 ‘고상한 도덕’, ‘景行’은 ‘光明正大한 행위’이다.

22) 유가에서 제창하는 ‘履中’ 혹은 ‘蹈和’는 ‘躬行中庸之道’ 혹은 ‘謙和之道’를 말한다. ‘和’는 처세원칙이자 심미표준이다.

23) 《論語》〈憲問〉: 「邦有道, 穀; 邦無道, 穀, 恥也。」

24) 范仲淹 〈岳陽樓記〉: 「先天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유가사상의 우환의식에서 나왔다.

25) 원림의 이름 자체가 유가사상에서 기인하였다. 원주인 任蘭生이 《左傳》: 「進思盡忠, 退思補過」에서 취했다.

군자의 고결한 인격을 상징한다. 이와 동일한 것으로는 天平山莊의 歲寒堂, 怡園의 歲寒草廬가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졸정원의 小滄浪閣, 이원의 小滄浪, 창랑정의 濯纓亭, 망사원의 濯纓水閣, 暢園의 滌我塵襟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楚辭》〈漁父〉: 「창랑의 물은 맑으면 내 갓끈을 씻을 수 있으리오.(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에서 취했다.

獅子林의 주청인 燕譽堂은 원주가 손님을 맞는 장소로, 《詩經》〈車轄〉: 「연회를 하며 또한 즐기고, 그대를 좋아하여 싫어함이 없도다.(式燕且譽, 好爾無射)」에서 따온 말이다. 이 경명은 높은 덕행을 지닌 손님을 맞이하는 원주의 진정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天平山莊의 寤言堂<sup>26)</sup>, 예포의 博雅堂<sup>27)</sup>, 창랑정의 明道堂<sup>28)</sup> 등이 있다.

汲古得修綆處은 원래 留園의 書房이다. 이 경명은 韓愈 〈秋懷〉: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야 대도를 알고, 오래된 우물물을 길으려면 긴 두레박줄을 얻어야하네.(歸愚識夷塗, 汲古得修綆)」에서 취하였는데, 깊은 우물(학문)을 파는 데는 긴 줄(좋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유가적 교훈에서 나온 말이다. 이와 유사한 경명으로는 學圃<sup>29)</sup>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상의 은택과 후손들의 번성을 염원한 경명으로 曲園의 湛露堂<sup>30)</sup>, 藝圃의 世綸堂<sup>31)</sup>, 退思園의 蔭餘堂<sup>32)</sup> 등이 있다.

## ② 도가적 내용

우선 도가철학서인 《老子》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경명으로는 창랑정의 自勝軒<sup>33)</sup>이 있고, 《장자》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경명으로는 天平山莊의 逍遙亭과

26) 《蘭亭集書》: 「寤言一室之內」에서 취했다. 이곳은 명사들이 모이는 곳으로, 실내에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을 말한다.

27) 친구들을 만나 경치를 감상하고 시문을 짓는 곳으로, 《後漢書》〈杜林傳〉: 「博雅多通, 稱爲任職相」에서 나왔다. 학식이 넓고 성격이 단아한 사람.

28) 〈滄浪亭記〉: 「形骸既適則神不煩, 觀聽出鬼沒無邪則道以明」에서 취했다.

29) 《論語》〈子路〉: 「[樊遲] 請學爲圃, 子曰: 『不如老圃.』」 朱熹集注: 「種蔬菜曰圃」

30) 《詩經》〈南湛〉: 「湛湛露斯, 匪陽不晞」 조상의 은택이 영원토록 내렸으면 하는 희망이 담겨 있다.

31) 《禮記》〈緇衣〉: 「王言如絲, 其出如綸」 父子나 祖孫이 이어서 중서성 관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文徵明과 그의 曾孫인 文震孟이 中書省 관직을 한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겼다.

32) 「先祖有德, 庇蔭有餘」

망사원의 集虛齋<sup>34)</sup>가 있다. 또한 도가사상에서 출발한 은일과 전원예 대한 염원을 담은 경명이 많은데, 은일과 관련된 경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城曲草堂(藕園)  
 枕波雙隱(藕園), 漱石亭(拙政園)  
 小桃源(拙政園), 小桃塢(留園),  
 且閑亭(羨園), 閑吟亭(滄浪亭), 容輿(滄浪亭)  
 朝爽亭(藝圃), 致爽閣(虎丘), 西爽樓(留園)  
 小山叢桂軒(網師園)  
 瑤圃(拙政園)

성곡초당은 성 모퉁이의 초가집이란 뜻으로 청고한 은일생활을 의미한다. 이 경명은 또 李賀 〈石城曉〉: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니, 성 모퉁이에는 버드나무 잎사귀가 가득하네.(女牛渡天河, 柳煙滿城曲)」에서 '성곡'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부의 사랑 얘기도 담겨 있다. 이는 寫志와 抒情이 모두 담겨 있는 경명이다. 枕波雙隱의 '枕波'는 '돌을 베개 삼고 냇물로 이를 닦는다.(枕石漱流)'를 줄인 말이고, '雙隱'은 부부가 함께 숨는다는 의미로 원주인 沈秉成 부부의 원림생활을 산수 속 은일생활에 견준 것이다. 拙政園의 漱石亭 또한 마찬가지이다.

小桃源과 小桃塢은 모두 도연명의 이상향을 그린 〈桃花源記〉에서 유래하였다. 且閑亭과 閑吟亭 역시 원림 속에서 은일생활의 여유로움으로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容輿<sup>35)</sup> 또한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이다. 朝爽亭과 致爽閣, 그리고 西爽樓는 모두 《世說新語》〈簡傲〉: 「서산에 아침이 오니, 또 다른 상쾌한 기운이 있다.(西山朝來, 致有爽氣)」에서 나왔는데, 隱者의 한가로운 마음과 안일한 정취를 표현한 것이다. 이곳에 오면 일상의 직무를 잊고 정화된 심령상태를 유지하며 심분 유쾌했으면 하는 바람의 의미를 지녔다.

小山叢桂軒은 건물 앞 작은 산에 계수나무 숲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나, 造園을 할 때 淮南小山의 〈招隱士〉<sup>36)</sup>를 상기하여 만들었다. 北朝 庾信 〈枯樹賦〉: 「회남

33) 〈제33장〉: 「知人者智, 自知者明; 勝人者有力, 自勝者強。」

34) 〈人間世〉: 「唯道集虛, 虛者, 心齋也。」

35) 《楚辭》〈九歌·湘夫人〉: 「時不可兮驟得, 聊逍遙兮容輿。」'容輿'는 '安閑自得'이라는 의미이다.

36) 「桂樹叢生兮山之幽, 偃蹇連蜷兮枝相繚 …… 王孫兮歸來, 山中不可以久留。」

소산에는 총림으로 우거진 계수나무가 사람을 머물게 하네.(小山則叢桂留人)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초은사>의 내용과는 달리 은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단정하여 은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졸정원의 瑤圃는 옥을 캐는 밭으로 仙境을 가리킨다.<sup>37)</sup>

전원과 관련된 경명은 주로 도연명의 시문에서 용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見山樓(사자림, 羨園, 졸정원):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따다, 한가롭게 남산을 바라보네.(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飲酒》 제5수)

歸園田居(졸정원): <歸園田居> 제목 인용

無俗韻軒(藕園): 「어려서부터 세속과 어울리지 못하고, 타고난 성품이 산을 좋아하였다.(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歸園田居》 제1수)

鋤月軒(창랑정): 「아침에 일어나 거친 밭 손질하고, 달빛 허리에 두른 채 호미 매고 돌아오네.(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歸園田居》 제3수)

舒嘯亭(유원):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읊조리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歸去來辭》)

怡顏處(졸정원): 「술 단지 끌어 당겨 혼자서 술 따르고, 뜰의 나뭇가지 바라보며 웃음 짓는다.) 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顏」(《歸去來辭》)

緣溪行(유원): 「무릉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을 따라 가다가 길을 잃었다.(武陵人捕魚爲業, 緣溪行, 忘路之遠近)」(《桃花源記》)

吾愛亭(우원), 亦吾廬(유원): 「못 새들 즐겨 깃들고, 나 또한 내 오두막을 사랑한다네.(衆鳥欣所託, 吾亦愛吾廬)」(《讀山海經》)

還讀我書齋(유원): 「밭 갈고 씨 뿌리고 하는 중에도, 때때로 돌아와 책을 읽는다네.(既耕亦已種, 時還讀我書)」(《讀山海經》)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도연명의 시문에서 경명한 것은 모두 10개로, 한 사람의 시문에서 용전한 것으로는 최대이다. <음주> 제5수에서 뽑은 '견산'이라는 경명은 세 곳의 원림에서 공히 사용한 것으로 이 또한 보기 드문 현상이다. 원림을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설명하는 실례라 하겠다.

### ③ 불가적 내용

경명 중에 불교고사를 제외한 불교적 내용을 가지고 용전한 경우는 주로 불교 용

37) 《楚辭》〈九章·涉江〉: 「駕青虬兮驂白螭, 吾與重華游兮瑤之圃。」

어를 차용하는 것이다. 유원의 亦不二亭은 《維摩詰經不二法門品》에서 나왔으며<sup>38)</sup> '不二'란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의미로, 언어문자를 빌리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직접 入道한다는 뜻도 있다. 이는 活潑潑地榭 또한 '悟禪'의 경계를 표시하는 불교용어이며,<sup>39)</sup> 自在處도 空寂無碍하고 自由自在한 의미에서 나온 불교용어이다.<sup>40)</sup>

창랑정의 印心石屋은 불교의 著作인 〈景德傳燈錄〉: 「衣鉢은 信實無虛함을 나타내고, 禪法은 佛心宗旨를 실증한다.(衣以表信, 法乃印心)」에서 나온 것으로, '心相印'과 '以心傳心'은 같은 뜻이다. 見心書屋 역시 '見心見性'이라는 불교용어에서 나왔다.

怡園의 慈雲洞은 《鷄跖集》: 「부처의 자비심이 큰 구름과 같아 세상을 덮는다.(如來慈心如彼大雲蔭注世界)」에서 '慈'와 '雲'이 합해져 나왔으며, 실제로 동굴 안에는 觀音菩薩大慈大悲 불상을 닮은 바위가 있다. 사자림의 打盹亭은 禪定(참선하여 삼매경에 이름)상태로 '無念無我'의 경계를 추구한다는 불교용어이다. 호구의 花雨亭 역시 불교용어로 하늘이 불법의 공덕을 찬탄하여 비처럼 꽃을 뿌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sup>41)</sup>

## 2) 서경적 묘사

서경적 묘사란 원림 내의 경물과 거기서 창출되는 자연적 경관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밝히거나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서경의 경우 단순하게 경치만 묘사하는 것(寫景)에 그치지만, 詩詞의 구절을 용전한 경우 意境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 ① 寫實的 景名

졸정원의 嘉實亭은 정자 주위에 枇杷樹가 가득하여 지은 이름이다. 이 경명은 黃庭堅 〈古風〉: 「매화나무에 좋은 열매로다.(江梅有嘉果)」에서 따와 그 정취를 맛

38) 「文殊問維摩詰, 何等是不二法門, 維摩詰默然不應. 文殊曰: 『善哉, 善哉, 乃無有文字語言, 是真人不二法門』」

39) 원래 불교용어인데, 송대 理學에서도 사용하였다. 《中庸集注》: 「故程子曰: 此一節, 子思吃緊爲人處, 活撥撥地, 讀者其致思焉。」

40) 《法華經》〈序總〉: 「盡諸有結, 心得自在」에서 취했다.

41) 《仁王經》〈序品〉: 「時無色界雨諸香華, 香如須彌, 華如車輪。」에서 취했다.

보고자 하였다. 海棠春塢는 작은 정원으로 해당화가 피는 봄을 관상하는 곳이다. 해당화는 모란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꽃이며 또한 '꽃 중에 신선'이라는 미칭을 가지고 있다. '海棠春'이라는 詞調는 秦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퇴사원의 菰雨生涼軒은 뒤쪽으로 연못과 닿아 있고 건물 주변에 연꽃과 줄 그리고 부들을 심었다. 건물 안으로 찬바람이 불어들면 연꽃 향기가 스며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경명은 姜夔〈念奴嬌〉: 「푸른 잎에 찬바람 부니, 옥같이 고운 얼굴 술로써 사라지고, 줄과 부들에 비가 다시 뿌리네.(翠葉吹涼, 玉容銷酒, 更灑菰蒲雨)」라는 詞句에서 그 뜻을 취하였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비가 줄과 부들에 내리면 찬바람이 닦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원의 又一村亭은 陸游〈遊山西村〉: 「산과 강만 되풀이되어 길이 없다 생각했는데, 버드나무 녹음이 짙고 꽃이 만발하니 다시 마을이로구나.(山重水復疑無路, 柳暗花明又一村)」에서 취했는데, 앞에 예기치 않게 나타난 어느 마을의 아름다운 봄빛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다.

涵靑池는 푸른빛이 가득한 못으로, 儲光羲〈同張侍御鼎和京兆蕭兵曹華歲晚南園〉: 「못은 푸른 풀색을 담았고, 산은 흰 구름 그림자 띠를 들렀네.(池涵靑草色, 山帶白雲陰)」에서 취했다. 색채를 이름에 넣어 청신하고 자연스러운 의경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유원의 涵碧山房과 망사원의 涵碧泉이 있는데, 모두 朱熹의 시구인 「한 줄기 강은 푸른빛을 담았고, 온 숲은 이미 붉게 물들었다.(一水方涵碧, 千林已變紅)」에서 따 왔으며, 푸른 물빛뿐만 아니라 푸른 산림의 그림자까지 합해져 나온 경명이다. 우원의 受月池는 연못에 달빛이 가득하여 매우 밝다는 의미이며, 李商隱〈戲贈張書記〉: 「연못의 찬란한 빛에 달이 보이지 않고, 들판의 기운은 산을 삼키려 한다.(池光不受月, 野氣欲沉山)」에서 취했다.

유원의 綠蔭軒은 봄을 감상하는 곳으로, 건물 옆에는 늙은 느티나무와 단풍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데, 그 잎이 마치 큰 우산을 펼친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sup>42)</sup> 이원의 鎖綠軒 마당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고목이 있어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또한 이 건물은 푸른 숲 아래에 숨어 있어, 의경이 杜甫〈哀江頭〉: 「曲江 주변 궁전문은 모두 닫혔는데, 가는 버들과 새 부들은 누구를 위하여 초록인가?(江頭宮殿鎖千門, 細柳新蒲爲誰綠)」와 비슷하다. 유원의 遠翠閣은 方干〈東溪別業寄吉州段郎中〉: 「멀리 앞산에 비취빛 가득하여, 창 가운데 죽 줄지어 있네.(前山含

42) 高啓《葵花詩》: 「艷發朱光裏, 叢依綠蔭邊」의 정취와 비슷하다.

遠翠, 羅列在窗中)이라는 시구에서 경명을 취하였는데, 이곳에서도 푸른 나무와 대나무를 바라보면 요원한 감을 느낀다. 자연미의 구체적 형태이며 산야의 청신한 흥취가 배어 있다. 줄정원의 浮翠閣은 가산 꼭대기의 이층팔각형 누각으로 푸른 누각이 마치 떠 있는 것 같아 취한 이름이다.<sup>43)</sup> 퇴사원의 送靑簾는 산장의 최상층으로 사방을 둘러보면 모두가 녹색이기 때문에 취한 경명이다.<sup>44)</sup>

曲園의 曲水亭은 굽이진 개울이 있는 정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음력 3월 上巳日에 修禊의식을 마친 후 행하던 일종의 음주놀이인 '曲水流觴'에서 따온 것이다. 이 경명은 그곳의 정취와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놓고 싶은 생각<sup>45)</sup>으로 지은 이름이다. 창랑정의 面水軒은 글자 그대로 북쪽으로 물과 마주하고 있어 마음을 활짝 펴고 눈을 시원스레 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두보 <懷錦水居止>: 「이층집이 물과 마주하고, 늙은 나무는 온갖 시련을 다 겪었다.(層軒皆面水, 老樹飽經霜)」와 蘇子美 <滄浪亭>: 「높은 집은 굽은 개울과 마주하고, 큰 대나무는 근심어린 얼굴을 위로한다.(高軒面曲水, 脩竹慰愁顏)」의 의경과 유사하다.

호구의 通幽軒은 常建 <題破山寺后禪院>: 「굽이진 좁은 길은 그윽한 곳과 통하고, 선방은 꽃과 나무 깊숙이 자리잡았다.(曲徑通幽處, 禪房花木深)」에서 따왔으며, 遊인들이 이 길을 따라 돌아들면 그윽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호구의 千頃雲閣은 蘇軾 <虎丘寺>: 「동헌에 아름다운 경치 있으니, 운해가 멀리 아름답게 퍼져 있네.(東軒有佳致, 雲水麗千頃)」에서 따왔는데, 이곳에 올라와 멀리 바라보면 운해가 넓게 펼쳐져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다하여 가져온 경명이다. 유원의 明瑟樓는 깨끗한 연못과 맞닿아 있고 푸른 단풍나무로 덮여 있다. 《水經注》<濟水>: 「못가에 손님 맞는 정자 있고, 좌우로 오동나무 있는데, 햇볕을 등지고서 굽어보았다 올려보았다 하니, 눈은 물고기와 새를 마주하고, 물과 나무 모두 밝고 깨끗하다.(池上有客亭, 左右楸桐, 負日俯仰, 目對魚鳥, 水木明瑟.)」에서 취하였는데, 여기서 얘기한 환경과 매우 흡사하여 경명을 취하였다. 줄정원의 月到風來亭은 못 가운데 있어 가을 달빛 감상하고 바람을 느끼는 데 최

43) 蘇軾 <華陰寄子由>: 「三峰已過天浮翠, 四扇行看日照扉」에서 이름을 취했다.

44) 王安石 <書湖陰先生壁>: 「茅簷長掃靜無苔, 花木成畦手自栽. 一水掘田將綠繞, 兩山排闥送靑來。」

45) 王羲之 <蘭亭集書>: 「又有清流激湍, 映帶左右, 引以爲流觴曲水, 列坐其次. 雖無絲竹管弦之盛, 一觴一詠, 亦足以暢敘幽情。」에서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적이며, 일종의 생활정취일 뿐만 아니라 禪趣이기도 하다. 이 경명은 理學家 邵雍의 〈清夜吟〉: 「달이 하늘 가운데 다다르고, 바람이 수면에 불어올 때, 일반적으로 맑다는 의미를, 소수 사람들만 알거란 생각이 든다.(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에서 취했다. 위의 경명들은 모두 顧名思義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겉으로는 寫實이지만 이면에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명이 있다. 사자림의 綠玉靑瑤之館은 북쪽 대청<sup>46)</sup>으로 元代의 대화가인 倪瓚 〈雲林〉: 「희미한 마을이 소나무 언덕과 닿아 있고, 초록빛 산과 푸른 강은 서로 감기어 얽혀 있네.(依微同里接松陵, 綠玉靑瑤繚復縈.)」에서 따 왔으며 '綠玉'은 '綠水'이고 '靑瑤'는 '假山'을 비유한 것이다. 또한 '玉'과 '瑤'는 富와 倫理道德을 상징한다. 고로 단순한 사경은 아니다.

창랑정의 翠玲瓏은 竹亭의 편액인데, 소순흙 〈滄浪懷貫之〉: 「가을빛이 숲속에 드니 붉은 빛이 희미하고, 햇빛이 대숲에 비쳐드니 비취빛이 영롱하네.(秋色入林紅黯淡, 日光穿竹翠玲瓏)」에서 따 왔으며 햇빛이 비치는 대나무 숲의 영롱한 빛을 묘사하였다. 거의 모든 원림에 대나무를 갖춘 것은 고매한 인격 표상인 절개를 숭상했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선비의 최대 덕목인 절개의 상징이다. 졸정원의 玲瓏館도 이것에서 나왔다.

사자림의 暗香疏影樓는 林逋 〈山園小梅〉: 「시원한 그림자 비스듬히 내리고 물은 맑고 얇은데, 매화 송이 떠다니고 달은 희미해지네.(疏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에서 취한 것으로, '暗香'은 맑고 그윽한 매화 향기 즉 매화의 별칭이고, '疏影'은 시원한 그림자를 뜻한다. 망사원의 竹外一枝軒은 대나무 바깥으로 보이는 매화의 한 가지라는 뜻으로, 깊은 곳에 홀로 비스듬히 보이는 매화의 자태를 잘 표현한 것이다.<sup>47)</sup> 창을 열면 보이는 매화를 烘雲托月의 수법으로 처리하였다. 졸정원의 蘭雪堂도 난의 幽香과 눈의 潔白을 나타내는데, 도덕과 품행이 범속을 초탈했다는 의미로 쓰였다.<sup>48)</sup> 우원의 紉蘭室은 여주인이 書房에 붙인 이름인데, 《초사》 〈이소〉: 「가을 난을 엮어 패용하였다.(紉秋蘭以爲佩)」에서 취하였다. 졸정원의 香洲 또한 《楚辭》 〈九歌·湘君〉: 「향기 나는 모래톱에서 두약을 캐어, 장차 하녀

46) 사자림의 남쪽 대청은 燕譽堂이다.

47) 蘇軾 〈和秦太虛梅花〉: 「江頭千樹春欲暗, 竹外一枝斜更好」에서 취하였다.

48) 李白 〈詠月詩〉: 「獨立天地間, 清風灑蘭雪」에서 취하였다.



에게 주려 합니다.(采芳洲兮杜若, 將以遺兮下女)의 '芳洲'에서 나온 것으로, 향초인 杜若은 청고한 선비로 비유된다. 여기서의 연꽃이 바로 향초이다. 매화와 난뿐만 아니라 연꽃 역시 고결하면서 속되지 않은 인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이외에도 즐정원의 玉壺氷館은 鮑照 <代白頭吟>: 「곧기가 붉은 줄 같고, 맑기가 옥호빙 같네.(直如朱絲繩, 清如玉壺冰)」에서 취하였다. 여기에서 옥호빙이란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것으로, 얼음을 빌어 마음의 순결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얼음은 바로 순결의 상징이다.

## ② 寫意的 景名

사의는 동양화의 한 기법으로 경물을 정교하게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정신적 자태와 화가가 느끼는 정취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形簡意豐'의 표현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원의 玉虹亭을 들 수 있는데, 陸游 <故山>: 「계곡에 떨어진 빗물 샘으로 내달리고 흰 무지개는 춤을 추네.(落澗奔泉舞玉虹)」라는 시구에서 취했다. 이 정자의 반은 주랑의 허리 부분에 기대 있고 반은 굽은 난간에 닿아 있으나 무지개의 형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원주는 다만 이곳에서 高山流水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경명을 취했을 뿐이다.

예포의 延光閣은 소주 원림 최대의 水榭로 햇빛, 하늘빛, 달빛이 모두 들어오는 곳이다. 이 경명은 阮籍 <大人先生傳>: 「養性和 延壽에 대하여 묻더니, 자연과 더불어 빛을 받았다.(問養性延壽, 與自然齊光)」에서 따 왔으며, 생명을 연장하여 장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창랑정의 寒光堂 역시 찬 달빛이 들어온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지만, <木蘭詩>: 「북방의 한기는 딱딱이 소리에 전해지고, 차가운 달빛은 철갑옷을 비추네.(朔氣傳金柝, 寒光照鐵衣)」에서 따 온 것으로 보아 애국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원의 佳晴喜雨快雪之亭은 詩와 文 그리고 碑帖에서 각각 따와 묘하게 집성한 것이다. '佳晴'은 맑고 좋은 날씨로 范成大의 「맑고 좋은 날씨에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佳晴有新課)」라는 시구에서 취했으며, '喜雨'는 가뭄 끝에 오는 반가운 비로 <春秋> <穀梁傳>의 「비를 기쁘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에게 뜻을 두기 때문이다.(喜雨者, 有志于民者也)」라는 문구에서 그 의미를 취했다. 여기에서 '快雪'은

눈 온 뒤의 맑은 기후에 유쾌한 심정이라는 의미로, 王羲之의 《快雪時晴》이라는 표제에서 취했다. 때맞추어 오는 좋은 氣象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늘 좋은 일만 생겨 즐거운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경명을 취했다.

창랑정의 鏡中遊는 《世說新語·言語》: 「산음현 길을 따라 올라가니, 마치 거울 속에서 노니는 듯하네.(山陰道上行, 如在鏡中遊)」에서 취했다. 소흥은 水鄉으로 그 풍광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소흥에는 會稽山과 鑿湖가 있어 '稽山鏡水'라는 호칭으로도 널리 불린다. 따라서 이 경명에는 고산과 호수를 겸비한 소흥의 지리적 특색을 잘 살린 경명으로 애향심이 십분 발휘 되었다.

웅취산장의 月駕軒은 《水經注》: 「봉우리에 月車<sup>49)</sup>가 머문다.(峰駐月駕)」에서 취하였는데, 달빛 아래 작은 배가 산봉우리 사이를 통과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이 건물의 남북으로 작은 정자가 있는데 전체 형태를 보면 마치 작은 배가 연상된 데서 출발하였다. 퇴사원의 眠雲亭은 가산 꼭대기에 위치하여 마치 구름 가운데에서 편히 자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劉禹錫 《西山蘭若試茶歌》: 「차의 시원한 맛을 알고자 하면, 바위에 누워 구름 속에서 잠자 봐야 한다.(欲知花乳清冷味, 須是眠雲臥石人.)」과 의경이 비슷하여 경명을 취하였다. 산 속의 작은 배와 산중의 구름은 모두 소요자적하는 은일과 연관이 있으며 무욕무념의 자유로운 심리상태와 관련이 있다.

졸정원의 待霜亭에는 감귤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 韋應物의 〈故人重九日求橘〉: 「편지 뒤에 굴 삼백 개에 대해 제명하고 싶지만, 동정호 굴은 숲속에 서리 가득 하기만을 기다려야겠지요.(書後欲題三百顆, 洞庭須待滿林霜.)」에서 경명을 취하였는데, 서리가 내리면 동정호의 감귤나무가 붉어지며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몇 그루 감귤나무를 보면서 가을철 동정호의 붉게 물든 아름다운 산야를 연상하게 하였다. 졸정원의 奉橘亭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선원과 졸정원의 宜兩亭은 白居易 〈欲與元八卜隣先有是贈〉: 「맑은 달은 세 갈래 좁은 길에서 밤을 함께 하기에 좋고, 푸른 수양버들은 두 사람이 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明月好同三徑夜, 綠楊宜作兩家春)」에서 취했는데, 백거이와 元宗簡은 서로 이웃으로 두 사람은 함께 원림에서 자주 봄날을 즐겼다. 따라서 이 경명은 이웃과 더불어 봄날을 즐기기에 적합한 정자라는 생각에서 그 의경을 옮겨온 것

49) 신화전설에 나오는 달을 실은 수레.

이다. 망사원의 宜春寗은 施肩吾 <春日餐霞閣>: 「비 뿌리고 난 후 막 날씨가 개니, 찬하각 위가 봄을 즐기기에 최상이로다.(灑水初晴物候新, 餐霞閣上最宜春)」에서 취했다. 매번 봄빛이 찬란할 때 벽으로 에워싸인 정원 안 이곳에서 봄날의 따스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 3) 서정적 표현

일반적으로 서정이란 예술 작품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 경명에 있어서 서정적 표현이란 자신의 흥취와 감정을 압축하여 의경을 승화시키는 것인데, 자신의 감정을 전파함으로써 타자들로 하여금 경관의 외적 형태만을 통하여 느낄 수 없는 상호간의 감정적 동화를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먼저 경물을 통해 서정을 담은 경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怡園의 舊時月色軒은 ‘월색’은 사실적이지만 ‘舊時’가 앞에 놓임으로써 서정적 요소를 갖추게 되었다. 長庵주인이 이원에 집을 짓고 매화를 두루 심어 姜夔 <暗香·舊時月色>: 「예전에 밝은 달빛이 나를 몇 번인가 비추었지. 매화 옆에서 피리 불 적에.(舊時月色, 算幾番照我, 梅邊吹笛.)」에서 이름을 뽑아 俞樾에게 글씨를 부탁하였다. 밝은 달빛과 매화 그리고 피리 부는 나, 이런 한적하고 우아한 情致를 맛보기 위한 바람에서 경명을 지었다.

유원의 掛峰軒은 동서 두 개의 대청 사이에 위치하며 원주가 취미활동과 여가를 즐기는 곳이다. 朱熹 <遊百丈山記>: 「앞쪽 여산에 읍을 하니, 하나가 독수봉이로구나.(前掛廬山, 一峰獨秀)」에서 경명을 취하였는데, 건물 서쪽에 있는 獨秀峰을 비롯하여 주위에는 石峰이 매우 많다. ‘掛’은 물체를 인격화한 것으로, 石峰에 대한 원주의 지극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선원의 憶梅는 李商隱 <憶梅>: 「한매가 가장 한스러운 것은, 오랫동안 지난해 꽃으로만 남기 때문이지.(寒梅最堪恨, 長作去年花)」에서 취했다. 시인은 자신을 겨울에 피고 봄에 시들어 봄날의 따스함을 누리지 못하는 寒梅의 신세라 여겼다. 이 시를 지을 때는 이미 봄이 되어서 ‘憶梅’라 하였으며, 주위에 심어 놓은 매화를 바라보며 느낀 감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예포의 愛蓮窩는 연못과 달아 있어 여름이면 연꽃을 감상하고 연향을 음미하는 곳이다. 이는 주돈이의 <애련설>에서 경명을 취했는데,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전혀 오염되지 않은 자태에 대한 특별한 감

정을 실었다고 볼 수 있다. 졸정원의 可竹은 蘇軾 〈於潛僧綠筠軒〉: 「고기는 먹지 않을지언정 대나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고기가 없으면 야윈 뿐이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비속해지니까.(寧可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에서 취한 것으로, 대나무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매화와 연꽃, 대나무 등 모두 고결한 인격과 절개를 상징한다.

졸정원의 與誰同坐軒은 대표적인 서정적 경명으로 蘇軾 〈點絳脣·閒依胡床〉: 「한가롭게 호상에 기대어 유공루 너머 수많은 봉우리 누구와 함께 앉을까? 밝은 달과 맑은 바람 그리고 나로구나.(閒依胡床, 庾公樓外峰千朵, 與誰同坐? 明月清風我.)」에서 한 구를 그대로 취했다. 공허한 인생을 산 시인은 지금부터라도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벗 삼아 세상을 초월하여 자연과 더불어 고고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순수한 감정을 실어 반어법으로 표현하였다.

#### IV. 결론

소주의 16개 원림 400여 개의 경명을 조사한 바, 127개에서 용전한 것을 확인해 최소한 30% 정도는 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논문은 용전으로 된 경명 128개를 대상으로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여 분석하였다. 용전은 '事典'과 '語典'으로 나뉜다는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신화전설과 역사고사를 하나로, 문사와 시구를 다른 하나로 보고 분류하였다. 문사와 시구로부터의 용전은 우선 내용을 인용한 것인지 표현을 가져온 것인지 구분하고, 이를 다시 철리적(儒·道·釋) 내용, 서경적 묘사(사실적, 사의적), 서정적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경물의 상징적 의미는 사실적 경명에 첨부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결과, 신화전설·역사고사와 관련된 경명은 21개, 철리적 내용과 관련된 것은 58개, 서경적 묘사와 관련된 것은 43개(9개는 상징과 관련이 있음), 서정적 표현과 관련된 것은 6개로 나타났다.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서경적 묘사 또한 출전의 의경을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形似에 그치는 것은 거의 없었다.

또한 유가적 내용으로 된 경명이 22개, 도가적 내용으로 된 경명이 28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원주는 유가적 인생관과 인물관, 출사 지향적 행위와 높은 덕행 등을 염원하였으며 동시에 도가적인 인생관과 인물관, 은일도피적 사고와 淸高不俗한 신

님 등을 추구하였다. 특히 四君子(梅蘭菊竹)와 歲寒三友(松竹梅)를 자주 사용한 것은 유가적인 고매한 인격을 숭상했다는 증거이고, 원림을 도시와 동떨어진 전원 속의 가옥으로 간주하여 6개 원림 11개 경물에 도연명의 시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도연명에 대한 숭상과 전원자락에 대한 추구가 끊이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물론 조상의 은택과 대대손손 번창하기를 바라는 경명도 빠지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이상에서 용전으로 된 소주 원림의 경명에 대하여 기존의 경명법을 모두 제시하였고, 또한 본인 나름대로의 경명 분류방법에 의해 경명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문에서 제기한 주장을 근거로 간단하나마 소주 원림의 경명에 대한 몇 가지 특색을 밝혔다. ‘경명’이라는 자체로 볼 때 기표와 기의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연이나 내함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작한 이 논문은 경명의 일부만을 연구하는 데 그쳤다. 다음 기회에 나머지 경명을 모두 고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參考文獻】

- 陳植, 張公馳 選注《中國歷代名園記》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3  
 童嵩《江南園林志》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4.  
 王鐸《中國古代苑園與文化》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1  
 陳從周《中國園林鑑賞辭典》, 華東師範大學出版社, 上海, 2001  
 劉庭風《中國古園林之旅》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3  
 王毅《中國園林文化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  
 陳從周·張啓霆 選編 趙厚均 注釋《園綜》上海, 同濟大學出版社, 2004  
 章采烈《中國園林藝術通論》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4  
 岳毅平《中國古代園林人物研究》西安, 三秦出版社, 2004.  
 金學智《中國園林美學》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5  
 曹林娣《中國園林文化》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5  
 魏嘉瓚《蘇州古典園林史》上海, 三聯書店, 2005  
 盧晨海 編注《中國歷代園林圖文精選》上海, 同濟大學出版社, 2006  
 曹林娣《蘇州園林匾額楹聯鑑賞》北京, 華夏出版社, 2009  
 金荷仙 외 4인〈園名景名の取名方法及其文化內涵〉;《浙江林學院學報》16期 3號,  
 1999

- 方茜〈蘇州四大名園中的景名文化〉:《建築創作》2004年 10期  
方茜〈蘇州私家名園中的景名文化〉:《華中建築》2005年 2期(第23卷)  
李玉堂·方茜〈中國古典私家園林中的名稱文化初探〉:《新建築》2005年 5期  
席岳婷, 魏峰群, 馬耀峰〈旅遊風景景名規劃設計〉:《建築科學與工程學報》23卷 3期,  
2006. 9  
安徽省建築工業學院黨委宣傳部〈戴同標談中國園林景觀題名的構思格式〉: 2007年 1期  
徐萱春〈中國古典園林景名探析〉:《浙江林學院學報》2008年 2期(第25卷)  
簡浩東, 朱永春〈品味與解構—中國古典園林景名創作方法探討〉:《中外建築》2010年 12期

### 【中文提要】

這篇論文首先提示了幾個既存的景名法, 然後本人自己提到了新的景名法. 根據我的調查, 蘇州園林大略有四百多個景名, 其中以用典作為的景名為百分之三十左右. 這篇論文以用典景名為主進行分析而研究, 而且結論部分敘述蘇州園林景名的幾個特徵. 從景觀題名與景觀本身的關係看, 景觀題名往往能直接反映或間接映射出題名景觀本身的內容或主題, 蘇州園林景名也有哲理的(儒·道·釋)內容或田園隱逸追究的主題. 哲理的景名有五十八個, 田園隱逸的景名有二十五個. 敘景的描寫從描寫性層面可分為寫實與寫意兩種類型. 寫實的景名一共有二十八個, (一些景名包含着象徵的意味) 寫意的景名有一十八個. 抒情的景名也有六個. 與神話傳說·歷史故事有關的景名還有二十一個. 景名可以看作是景觀的延伸, 遊客可以從景名觀照其背後的信息, 將它作為看待景觀作品的又一視覺.

### 【主題語】

景名, 景觀, 題名, 意境, 記標, 記意, 陶淵明, 蘇州, 哲理的, 敘景的, 抒情的, 寫實的, 寫意的.